부처골에 온 부처님

윤 제 학
〈동화작가 · 현대불교신문 출판부장〉

4 현대불교 창간 4돌

그의 꿈은 결코 석수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석수장이였기 때문에 석수장이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석수장이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석수장이가 된 것처럼.

"어이, 인석이. 잘 있었는가."

박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힐끔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역시 자네는 타고난 돌쟁이여. 망치질하는 손 놀림조차 어른을 그대로 빼닮았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일하는 고집도 그대로야."

말을 하면서도 박 사장은 잠깐도 손을 그냥 두지 않고 까만 양복으로 달라붙는 돌가루를 털어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석의 망치질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만약 이 모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았다면 금방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놈아, 망치질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솜씨 좋은 목수를 봐라. 그들은 못질을 하면서도 못대가리를 보지 않아. 오직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못 끝만 봐.'

망치와 정을 내려 놓는 인석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 이젠 자네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으니까 돈도 벌어야 하잖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내 밑으로 와. 자네 솜씨라면 금방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어릴 때 친구들이 돌쟁이 아들이라고 놀린다면서 울었던 적이 어디 한두번이야. 그게 다 가난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라. 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어."

박 사장은 침을 튀기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만 인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박 사장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 대꾸도 할 수 없는 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돌쟁이는 여느 돌쟁이와는 달라야 해. 돌부처는 돌쟁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돌 속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 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냥 봐서는 돌 속에 계신 부처님이 보이지 않아. 훌륭한 돌쟁이는 모양을 만드는 데 집착하는 법이 없어. 필요 없는 부분을 털어내는 데 공을 들일 뿐이지. 제아무리 솜씨가 좋아 봤자 옥에 티를 벗기는 일에 지나지 않아.'

마치 박 사장은 옛 스승의 이런 얘기를 듣기나 한 듯 다시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자네 어른도 내 말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 좋은 기계는 또 얼마나 많고. 어른이 몇년 걸려 한 일도 요즘은 몇달이면 족하다고."

돌부처처럼 앉아 듣기만 하던 인석도 차마 이 말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마치 씹던 밥에서 골라낸 돌을 뱉듯이 입을 엽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했던 분이 왜 다른 사람까지 부추켜 도망치듯이 아버지 곁을 떠났나요."

"그건 어른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지 우리가 떠난 게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도 모르는 분이셨거든. 그건 자네도 잘 알잖아."

인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돌부처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돼. 그런 사람은 돌에 피가 돌 게 할 수 없어. 하다 못해 돌담을 쌓는 돌쟁이도 돌의 이모저모를 살펴 제자리를 찾아주는 법인데, 부처님을 모시는 돌쟁이라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과는 달라야지. 욕심으로 만든 부처님은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

박 사장은 떠났습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변하면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그날부터 인석은 정과 망치를 영원히 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와 같은 장인이 될 능력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 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주 먼 곳으로 — 자신이 무얼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 그런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다듬는 재주 말고는 물려 받은 것도 없었으니 길 떠나는 그에게 소용될 게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했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몇 개의 연장을 가방 속으로 챙겨 넣습니다. 끌망치, 도두락망치 그리고 조금씩 모양이 다른 몇 개의 정.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분신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두고 갈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종이배를 접어 강물에 띄웠듯이 세상이라는 큰 강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까지 누렇게 익은 벼들이 넘실대는 곳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자리잡은 집들은 들녘 끝 산자락에 기대앉아 일 나간 주인들을 기다리며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그중 가장 한갓진 곳에 자리잡은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하늘에 걸린 빠알간 까치밥이 꼭 자신을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네의 이름은 부처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고 부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돌부처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네 이름이 귀에 익어서 찾아오긴 했지만 어차피 버스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가르쳐 준 여러 동네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

집 주인인 듯한 할아버지는 낯선 젊은이가 마당을 서성이는대도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없이 말을 건네며 지게를 벗어 내립니다.

"저, 그냥 농사일이라도 거들면서 며칠 묵었다 가려고요."

"행색을 보아하니 나쁜짓하다 쫓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네만 농사꾼도 아닌 것 같구먼."

"예, 어르신. 농사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렇게 튼튼하니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밥벌레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속아 보지. 농삿일이라는 게 원래 하늘이 해 주는 거니까."

그날부터 인석은 부처없는 부처골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썩 잘 해 내었습니다. 벼를 베고 볏가리를 만들고 낟알을 털어 가마니에 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제격이었습니다.

"부처골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그려."

인석은 어느 새 부처골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회지로 나갔기 때문에 이집저집에서 서로 인석을 데려 가려고 다툴 정도였으까요.

가을걷이가 끝이나자 나무들도 다투어 잎을 내려 놓기 시작합니다. 일손을 놓은 농부들은 다시 겨울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인석에게는 긴 휴식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할 일 없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던 인석은 발부리에 채이는 도토리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동네의 뒷산 기슭에 발길이 닿았으니까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마을과 뒷산을 번갈아 둘러보고는 내친 걸음에 산 꼭데기까지 가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제법 험한 산이었습니다. 겨우살이 준비에 바쁜 다람쥐와 길동무를 하며 정신없이 걷다보니 어느 새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잠시 멈춰 서서 이마의 땀방울을 훔치고 돌아서자 거짓말처럼 동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을 벌리면 한 집도 빠짐없이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들녘에서 바라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에 기대앉은 모습이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석은 그대로 굳어져 돌이라도 되려는 듯 꼼짝을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인석은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듯 목을 길게 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들짝 놀란 인석은 황급히 돌아서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법 넓은 너럭바위 위에 선 사람 모양의 바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쉴새 없이 절을 하던 인석은 나는 듯이 동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위 앞에 선 인석의 손에는 정과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인석은 신들린 사람처럼 끌망치로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토닥토닥 하는 소리가 더해 갈수록 거짓말처럼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새 날이 저물었지만 때마침 떠오른 보름달은 인석의 손끝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부처님의 모습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몸을 휘감은 옷자락은 금방이라도 휘날릴 듯했고 도드람한 입술에선 하늘의 노랫가락이 울려퍼질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부처님은 완연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얼굴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석은 돌이라도 된 양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위가 뚫어질 듯 바라보기만 할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뻥그렁'

탈진한 인석의 손에서 정과 망치가 미끄러져내립니다. 떨어지는 망치와 함께 인석드 털썩 주저앉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온 인석은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요.

인석은 동네 어른들께 인사도 하지 않고 동구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키보다 몇 갑절 큰 긴 그림자만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끕니다.

동네를 다 벗어날 무렵 인석의 손에선 꼬깃꼬깃 접힌 종이쪽지가 떨어져 내립니다. 박 사장의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인석은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도무지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보잘것 없는 재주가 박 사장을 찾게 만들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동네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껴준 어른들께 인사는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세우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새기다만 부처 바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인석은 미친듯이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부처님을 다치게 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곧 쓰러질 것 같던 사람이 언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단숨에 산을 오른 인석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거짓말처럼 눈을 뜬 부처님이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게 아닙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 부처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회지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 · 노열

거짓말처럼 눈을 뜬 부처님이 인석을 향해…

"돌부처는 돌쟁이가 만드는게 아니야
돌속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오는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로화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